한국학연구 제67집 | 317~339쪽 | 2022.11.

감염병과 주권의 재영토화

-1946년 콜레라의 발생이 불러온 풍경들-

허병식*

〈차 례〉

1. 판데믹 시대 감염병의 사회문화적 성격
2. 제국의 위생과에서 군정의 위생국으로, 생명정치의 재편
3. 귀환과 콜레라, 냉전과 봉쇄
4. 대구의 폭동과 제주의 항쟁, 주권의 재영토화
5. 감염병과 생명정치

[국문초록]

일본의 제국주의 시기에 한반도 외부의 구일본 제국의 권역 속에서 살아가던 조선인들은 해방을 맞은 후, 국내로 귀환하였다. 제국-식민지 질서에서 냉전-국민국가 질서로 주권권력이 재편되고 식민지배의 폐해와 전후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이익이 교차하던 국제정세 속에서 귀환을 둘러싼 양상은 복잡한 국면을 마주하고 있었다. 한반도와 일본 사이, 한반도와 만주 사이에 냉전적으로 교차하고 있던 경계선을 넘어서는 것은 자신이 속할 영토와 국가, 정체성 속으로 투신하는 작업이기도 했다.

1946년에 한반도 전역에 발발한 콜레라 사태는 귀환하고 월경하는 민족의 이동에 결정적인 장애로 작동하였다. 일본에서 노동을 하던 조선인들의 귀환은 콜레라로 인하 차질을 빚었다. 또한 중국 동북 지역 한인들이 귀국이 아니라 현지 정착을 택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도문을 중심으로 전 연변 지역을 휩쓸었던 콜레라 감염병이었다. 이 과정에서 온전한 국적조차 부여받지 못한 한인의 귀환은 국제적 현실과 냉엄한 전후 동아시아 질서 속에 휩쓸려 갔다.

감염병이 불러온 공포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당대의 미디어였고, 문학은 이 공포가 불러온 시스템과 질서의 혼란을 조명한다. 염상섭은 만주에서 귀환하던 한인들의 모습을 담은 일련의 작품에서 콜레라라는 감염병을 직시하고 있다. 만주로부터 귀환하는 한인

* 동국대학교 서사문화연구소 연구원

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들의 사상을 검증하는 것과, 콜레라 예방주사를 맞았느냐의 문제이다. 방역이 사상과 감염병 양편에 공히 방역이 작동하고 있는 양상이다.

콜레라라는 감염병과 관련해서 기억해야할 장소는 접경지만이 아니다. 해방 후 대구와 제주에서 일어난 정치적 격랑은 콜레라와 직접적인 관련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하다. 굶주림에 이어 병마로 다시 쓰러져야 했던 사람들-그들의 원과 한의 입김이 모여 시월의 폭풍을 불러왔다. 남한에서 주민의 수와 대비해서 가장 심각한 발병률과 사망률을 보여준 지역은 제주도였다. 미군정의 보고서는 이러한 제주의 콜레라 발병세에 대해서 방역 격리 조치가 이완된 것과 감염된 피난민이 제멋대로 밀수, 밀항하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판정하였다. 대흉년과 . 제조업체의 가동 중단, 높은 실업률, 미곡 정책의 실패 등으로 제주 경제는 빈사 상태에 빠졌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 상황과 콜레라 사태는 이후로 이어진 제주 4.3 사건과 밀접히 연동되는 것이다. 현기영이 그의 작품들에서 조명하고 있는 해방 후 제주의 풍경 속에는 어김없이 콜레라로 인해 흉흉해진 마을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이 연구는 해방기의 접경지과 대구, 제주에서 민심의 동요를 불러온 일련의 사태들을 당대의 정치사회적 맥락 속에서 조명하고, 이를 응시하고 있는 문학과 미디어의 담론을 분석하였다.

[주제어] 감염병, 콜레라, 귀환, 생명정치, 접경지

1. 판데믹 시대 감염병의 사회문화적 성격

인간의 역사는 감염병과 함께 한 역사이다.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늘 감염병의 희생이 되었고, 병을 이겨내기 위해 싸웠다. 2020년 이후 전 세계를 판데믹으로 몰아넣은 코로나19 사태 또한 그러한 인간의 오랜 역사 속의 한 과정일 것이다. 감염병은 많은 인명을 앗아가는 끔찍한 질병이자 사람살이의 질서를 바꾸어버리는 사건으로 남지만, 인류는 계속 감염병과 싸워 왔고, 누군가는 그 싸움의 기록을 남겼다. 역사적으로 인류의 삶을 위협한 다양한 질병이 유행할 때마다 지구와 각 민족국가에는 커다란 변화가 찾아왔고 때때로 인류는 역사적 퇴보를 겪기도 했다. 지금 전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은 또한 많은 사회문화적인 변화를 불러오고 있으며, 또한 기억할 만한 문학과 기록들을 남길 것이다.

감염병은 정체성, 시스템, 질서를 뒤흔드는 것이고, 경계와 위치와 법칙들을 무시하는 것으로,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인 공포를 선사하는 원인이 된다. 감염병이란 감염병 관련 전문가들이 다루는 난해한 하위 분야가 아니라 역사

의 변화와 발전이라는 '큰 그림'에 해당하는 주요 분야다. 다시 말해, 사회 발전을 이해하는 데는 감염병이 경제 위기, 전쟁, 혁명, 인구 변화만큼이나 중요하다는 뜻이다.[1] 이 글은 판데믹 시대 감염병의 사회문화적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하나의 사례로 1946년 한반도 전역에 발생했던 콜레라 사태에 주목하려 한다. 1946년 한반도를 강타했던 콜레라 사태는 자연사(事)적 사태인 동시에 사회 · 역사적인 것이었다. 인간 유기체의 콜레라균 감염이라는 점에서 콜레라균 감염과 발병은 질병학적, 세균학적(bacteriological) 자연사(事)의 일과정이다. 하지만 인간 유기체가 사회 · 역사적, 문화적 존재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전염병의 발병과 전염은 사회 · 역사적, 문화적 성격을 가지기도 한다.[2] 이 논문은 감염병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성격에 주목하고 그 결과 제출된 기록들과 문학작품을 분석함으로써 감염병의 사회문화적 성격을 규명할 것이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아 일본 제국에서 살아가던 한인들은 한반도로 귀환하였다. 이들의 귀환은 제국-식민지 질서에서 냉전-국민국가 질서로 주권권력이 재편되고 식민지배의 폐해와 전후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이익이 교차하던 국제정세 속에서 복잡한 국면을 마주하고 있었다. 한반도와 일본 사이, 한반도와 만주 사이에 냉전적으로 교차하고 있던 경계선을 넘어서는 것은 자신이 속할 영토와 국가, 정체성 속으로 투신하는 작업이기도 했다. 또한 한반도의 중심을 관통하는 38선은 종전 후 전세계적인 냉전 질서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린 상징과도 같은 경계선이었다. 주권권력이 변화하던 시기에 귀환하고 이동하던 주체들은 그들의 이동을 가로막는 정체성의 혼란과 이데올로기의 장벽을 체험하였다. 냉전과 국경 형성이 맞물린 상황에서 사람들의 월경이라는 구체적 실천을 방해한 것은 재편된 국경과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으로 분할된 냉전의 장벽만은 아니다. 그 이동을 통제하던 주권권력의 작동을 근본적으로 추동한 기제로 한반도 전역에 발생한 콜레라에 대한 공포를

1) 프랭크 M. 스노든, 『감염병과 사회 페스트에서 코로나19까지』, 이미경 · 홍수연 역, 문학사상, 2021, 16쪽.

2) 임종명, 「1946년 전남 · 제주 지역의 콜레라 발병세와 지역적 질병 문화권」, 『역사학연구』 81집, 2021.2, 123쪽.

빼놓을 수 없다.

1946년에 한반도 전역에 발발한 콜레라 사태는 귀환하고 월경하는 민족의 이동에 결정적인 장애로 작동하였다. 일본에서 노동을 하던 한인들의 귀환은 콜레라로 인하 차질을 빚었다. 또한 중국 동북 지역 한인들이 귀국이 아니라 현지 정착을 택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도문을 중심으로 전 연변 지역을 휩쓸었던 콜레라 감염병이었다. 이 과정에서 온전한 국적조차 부여받지 못한 한인의 귀환은 국제적 현실과 냉엄한 전후 동아시아 질서 속에 휩쓸려 갔다.

이 글은 한반도라는 정치적 권역으로 돌아오는 귀환서사와 38선이라는 냉전의 경계를 넘는 월경서사, 그리고 대구의 폭동와 제주의 4.3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을 경유하면서, 이를 통해감염병의 사회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적시하고, 이를 문화냉전이라는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귀환의 문화사와 냉전의 문화정치를 파악하면서, 콜레라라는 감염병을 둘러싼 미군정청의 관리와 담론체계를 분석해 나갈 것이다. 그 과정에서 대구의 10월 폭동과 제주의 4.3사태로까지 연동되는 질병의 사회문화사를 살피려고 한다.

2. 제국의 위생과에서 군정의 위생국으로, 생명정치의 재편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이후 미군정청)은 1945년 8월 15일 제국 일본의 패망 이후 한반도의 북위 38도 이남을 점령하여, 남한에 단독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까지 대리 통치를 실시하였다. 미군정기라고 불리는 이 시기에 미군정청은 군정법령을 제정하여 한반도 남부를 통치했는데, 그 법령의 제 1호는 「위생국 설치에 관한 건」이었다.

> 위생국 설치에 관한 건
> [시행 1945. 10. 4.] [군정법령 제1호, 1945. 9. 24., 제정]
> 제1조 경무국 위생과는 자에 차를 폐지함.

제2조 위생국을 자에 설치하며 금일까지 경무국 위생과가 행하든 의무와 직무를 행케 함.

제3조 경무국 위생과의 모든 자금과 문서와 재산을 위생국으로 자에 이속함.[3)]

제1호 법령은 '위생국 설치에 관한 건'으로, 그 내용은 경무국 위생과를 폐지하고 위생국을 설치하여 이 업무를 대체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제1호 법령으로 위생국 설치를 제정한 미군정의 결정은 식민지 조선의 위생에 대한 일본의 관리와 통치를 믿지 못한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위생에 대한 업무만이 아니라 조선의 일상에 대한 지배와 통치를 미군정이 담당하게 되었다는 점을 당대 일본과 해방된 조선에 선포하는 상징적인 의미도 지닌 것이었다. 특히 위생이란 식민지 주민의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 것이었기 때문에, 제국주의 일본이 물러나고 새로이 등장한 지배 권력으로서의 미군정청이 새로이 수립하고자 한 일상의 질서가 어떤 모습이었는가에 주목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해방후 북조선을 점령한 소련의 시각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북위 38도 이북에 진주한 소련민정청은 당대 조선의 보건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조선의 보건 수준은 일본제국주의 침략자들로부터 해방된 시점까지 매우 낮았다. 결핵, 결막염, 매독, 임질, 나병 등이 주민들 사이에 만연해 있었다. 그밖에 장티푸스, 적리(이질), 두창(천연두),콜레라, 페스트17) 등과 같은 매우 위험한 전염병에 계속적으로 시달리고 있었다.

「……」

일제시대의 병원들은 관영이든 민영이든 어떤 의료설비도 갖추지 않은 텅 빈 공간에 지나지 않았다. 환자들은 자신의의복과 침구를 지참하여야 했으며 어떠한

3)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C%84%EC%83%9D%EA%B5%AD%EC%84%A4%EC%B9%98%EC%97%90%EA%B4%80%ED%95%9C%EA%B1%B4/(00001,19450924)

편의시설도 없이 다만 수용되었을 뿐이다. 환자들을 간호하기 위해 가족들이 병원에 상주하였다. 아무런 병원 규칙도없는 상태에서 병원은 오히려 전염병 확산의 근거지가 되었다.[4]

소련민정청이 파악한 일제 강점기 조선의 위생상태 또한 미군정청의 진단과 다르지 않은 것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그들이 분할하여 점령한 조선에 대한 위생정책을 새로이 수립하여 질병관리를 수행하려 하였다.

이러한 미군정청과 소련민정청의 정책은 적어도 당시 언론에서는 환영받는 것이었던 듯하다. "일정시대에 비하면 이 땅 인민들의 보건후생을 위하여 마치 하나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과 같이 도군정청 보건후생부에서는 금년도에 예산 4억 1천만 원을 가지고 전쟁후에 격증하는 결핵병 예방 그 치료와 방역에 필요한 제반시설과 사업을 계획"[5]했다고 미군정청의 위생 정책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당대 미디어에서 발견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1947년 8월 3일자의 경향신문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발견할 수 있다.

조선은 반세기에 긍한 일제식민지 정책에 소위 위생행정이란 것은 경무부 일부에서 영업자의 등록취조에 한 한 사무징벌 뿐이었었고 건강한 민족이 영원한 발전과 권세를 획득함을 진작부터 알아차린 그들은 조선 민족의 이것을 두려워하며 고의적으로 방관태도를 취하여서 민간은 최저의 생활 속에서 오직 생명유지에 그날그날을 허덕였을 뿐 위생에 관하여서는 너무나 우매하여왔다. 이제 해방 후 다른 행정과 같이 아니 보다 더 의연히 큰 사명과 의도를 띄고 나타난 보건후생부의 존재는 민간의 의뢰와 기대가 큰 것이다. 이리하여 사회대중은 전에 없던 국민을 위한 위생적 보호를 받기 시작된 것이다.[6]

---

4) 북조선 주재 소련민정청 사업 결산보고서(1945년 8월~1948년 11월). No. 128~130; 황상익 · 김수연, 「해방 전후부터 정부 수립까지(1945년-1948년)의 북한 보건의료」, 『醫史學』 제16권 제1호(통권 제30호), 大韓醫史學會, 2007년 6월 재인용.

5) 『동아일보』, 1946.4.22.

6) 「국민보건방침」, 『경향신문』, 1947.8.3.

그러나 이와 같은 미디어의 반응을 모두 신뢰하는 것은 다소 섣부른 판단일 지도 모른다. 당대의 일상과 위생관리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 전염병 관리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해방 이듬해인 1946년 조선에 대규모의 전염병이 발발하면서 역설적으로 그 의미가 더욱 드러나게 되었다. 1946년의 콜레라 사태가 그것이다. 이 사태는 의료당국이 조선총독부 위생과에서 미군정청 위생국으로 바뀌면서 발생한 의료 공백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맥아더가 미 육군성에 제출한 1946년 6월 월례보고서 중 조선에 관한 내용이 1946년 8월 27일자 〈동아일보〉에 "새 조선 건설의 지장(支障)"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맥아더는 해방 직후 한국의 통치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로 식량 문제와 콜레라를 거론하고 있다.

연합군 총사령관 맥아더 장군은 미 육군성에 제출한 6월 월례보고서에 조선 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 2대 재난으로 인하여 조선인의 재건 노력은 6월 중 일대 지장을 받았다. 그 하나는 20년래 처음 보는 수해로 인하여 20%의 농작물이 유실되어 금년 역시 잡곡 수확량은 1940년부터 1944년간의 평균 수확량 142만7천 톤의 60%에 불과할 것이다. 또 미곡 수확량은 1940년부터 1944년간의 평균 수확량 200만7600 톤의 70% 밖에 안 될 것이다.
>
> 현재 조선의 식량 부족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미국으로부터 맥류 급 소맥분 54,827 톤이 수출되었으나 이 역시 가격 비등을 방지하지는 못하고 있다. 조선의 일반물품 소매가격 조사에 의하면 그 가격은 1945년 12월 가격의 200% 이상이 등귀되었다.
>
> 수해에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주시할 바는 통신-수송망에 지장이 재래되어 현재 조선이 당면하고 있는 제2의 재난, 즉 중국으로부터 전재민이 전염하여 온 호역(虎

疫)의 만연 방지 대책에 지장을 주고 있다. 6월 중에 보고된 호역 환자 수는 1,212명인데, 그중 651명은 사망되었다.[7]

미군정청의 통치에 따른 '국민을 위한 위생적 보호'는 결국 콜레라 사태 앞에서 그 허점을 드러내게 되었다. 물론 단순히 위생관리의 주체가 바뀐 것으로 새로운 제도가 정착하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미국이나 소련의 위생정책이 정착하기도 전에 콜레라 사태가 일어났다는 점과 일본식 위생대책의 잔재로 인하여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다.

"남이나 북이나 전염병에 대한 '무지(無知)'와 과거의 트라우마가 어려움을 가중했다. 소련 민정청이 작성한 '북조선 주재 소련민정청 사업 결산보고서(1945년 8월~1948년 11월)'에 따르면 1946년 콜레라가 발생했을 때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나 소련군은 환자들을 숨기지 말고 병원에 입원 시켜 치료받도록 한국 주민을 설득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일본식 콜레라 대응책'에 대한 공포 때문이었다. 일제강점기 때 전염병 환자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지 못했다. 전염 병동이나 일반 병원에 전염병 환자부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환자들은 치료 없이 주변으로부터 격리되지 않은 상태로 집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일제 경찰은 콜레라가 발생하면 발병 근원지를 포위해 외부와 격리해 그 지역의 모든 사람이 병과 기아 때문에 몰살되기까지 기다렸다. 공포감으로 주민들은 콜레라가 발병해도 숨기는 경우가 많았고, 전염병이 광범위하게 확산하곤 했다."[8]

일제강점기 때 전염병 환자를 격리하지 않고 집에 머물도록 하는 정책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이 1946년 콜레라 사태 때도 비슷한 방식으로 대응하

7) "새 조선 건설의 지장(支障)", 『동아일보』, 1946. 8. 27.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8) 정창현, 〈1946년 콜레라가 한반도를 덮치다〉, 『Newsis』, 2020.03.29.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9782789

다가 전염병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콜레라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의약품이 부족했던 것도 사태를 막지 못한 원인이 되었다.

> 아무튼 그 당시 콜레라는 사망률이 거의 100퍼센트였어요. 왜 그렇게 높았는가 하면, 치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은 정맥을 통해서 대량의 액체를 공급해주는 것인데, 그 당시 그런 약이 하나도 없었어요. 단지 가뭄에 콩 나듯 미군들이 가져다주는 약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었죠. 「……」 일제 때 쓰고 남은 의약품들은 거의 바닥이 난 상태였고, 환자에게는 정맥 내로 하루에 몇 리터의 액체를 공급해야 되는데, 일제 때 수액용으로 만든 주사액이란 많아봤자 500~200밀리리터, 대부분이 그 미만이었습니다. 심지어 일제 때는 대량의 액체를 정맥 내에 주사하면 심장에 부담이 많이 가서 위험하다고까지 했어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수액 약품은 전적으로 미군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것도 정기적으로 충분한 양을 갖다 주느냐 하면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의사 입장에서는 치료 수단을 뻔히 알면서도 약이 없어 죽어가는 환자의 모습을 보고만 있어야 했어요.[9]

동아시아 전후처리와 냉전 질서의 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이 콜레라 사태라고 할 수 있다. 제국 일본의 위생과를 폐지하고 위생청을 설치하여 생명정치의 전환을 꾀했던 미군정청과 소련민정청의 시도를 심각하게 위협한 사태가 콜레라라면, 그 사태의 원인이 중국에서 국경을 넘어 귀환하던 송환민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그것은 통치하는 주체의 이행과 통치받는 인민의 이동이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다는 것과, 그 이행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었다고 할 것이다. 아시아-태평양 전쟁 종전 이후 일본 제국의 해체와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 확립이라는 정치적 목표, 전후 동아시아 냉전정치의 시작의 분기이자 장애가 된 사건이 바로 1946년의 콜레라 사태라고 할 수 있다.

---

9) 박희명, 「수련의 시절 대구 콜레라 현장을 누비다」, 문제안 외, 『8-15의 기억』, 한길사, 2005, 157~158쪽.

3. 귀환과 콜레라, 냉전과 봉쇄

일본의 제국주의 시기에 한반도 외부 구일본 제국의 권역 속에서 살아가던 조선인들은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은 후, 국내로 귀환하였다. 해방 당시에 중국에 살던 조선인들은 230만 명에 이르렀으나, 이들 중 90여 만 정도만이 한반도로 귀환하고 나머지는 중국에 정착하는 길을 택했다. 일본에는 200여 만의 조선인이 살고 있었으나 이들 중 140만 정도가 귀국을 택하고 나머지는 일본에서의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다. 한반도로 귀환을 택한 조선인들이 넘어야 했던 경계선은 새로이 형성된 국경을 넘어가는 행위이면서, 동시에 한반도의 중심을 관통하는 38선이 상징하듯, 냉전의 경계를 넘어가는 작업이기도 했다. 그들은 민족의 정체성과 이데올로기의 장벽을 통과해서 새롭게 형성되는 국민국가의 주민이 되기를 선택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한반도 전역에 발생한 콜레라라는 장벽을 넘어서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1946년에 한반도 전역에 발발한 콜레라 사태는 귀환하고 월경하는 민족의 이동에 결정적인 장애로 작동하였다. 실제로 조선인들의 집단귀환계획을 추진하고 있던 일본점령당국은 1946년에 남한에 발생한 콜레라와 홍수, 철도파업 등으로 인하여 귀환계획에 차질을 빚었고, 1946년 12월에 한국인에 대한 집단귀환계획을 종결짓게 되었다.[10] 또한 중국 동북 지역 한인들이 귀국이 아니라 현지 정착을 택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도문을 중심으로 전 연변 지역을 휩쓸었던 콜레라 전염병이었다는 연구도 있다.[11]

미소 양군은 법령으로 38선 통행을 금지시키진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38선 월경을 금지시켰다. 38선이 점령군간의 경계선이자 분할선으로 명백히 설정된 것은 1946년 5월 이후였다 미군과 소련군은 콜레라 만연을 표면적인 이유로 38선 통행을 법적으로 봉쇄했고, 그해 9월 콜레라가 자취를 감추게 된 이후로도 38선의 봉쇄는 풀리지 않았다. 미소의 합작을 통해 1946년 5월 이

10) 최영호, 「해방직후 부산경남지역의 귀환자 원호체계와 원호활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6,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3, 15쪽.
11) 김춘선, 「중국 연변지역 전염병 확산과 한인의 미귀환」, 『한국근현대사연구』 43, 2007, 1쪽.

후 38선의 자유로운 통행은 완전히 단절되었다.[12] 식민지 지배로부터의 해방 이듬해에 발생한 콜레라 사태는 자유로운 이동을 막았다는 점에서 해방의 지연 혹은 봉쇄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이 콜레라는 1946년 5월부터 시작해 7개월 사이 15,644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그 중 10,181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11월에 종식되었다. 8.15 해방 후 귀환과 함께 중국의 화중 및 화남 방면으로부터 남한의 항구, 특히 부산에 콜레라가 상륙해 1946년 남한 일대에 크게 유행했다. 당시 각 도시에서는 방역선전, 예방주사, 교통차단 등을 실시했다.[13]

동아시아 전후처리를 주도한 미국은 연합군총사령부를 통해 소련, 중국 등과 교섭하며 동아시아 귀환을 조율해갔다. 대일점령을 우선 순위에 둔 미국은 일본, 중국, 소련 지역 귀환을 순차적으로 진행해갔다. 1946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된 귀환교섭은 태평양 전쟁기부터 이어진 미소협상의 미묘한 협력, 견제구도 틀에서 진행되었다. 전후 동아시아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온전한 국적조차 부여받지 못한 한인의 귀환은 미완의 과제로 남겨지게 되었다. 한반도라는 정치적 권역으로 돌아오는 귀환서사 38선이라는 냉전의 경계를 넘는 월경서사에 나타나는 질병의 사회사는 정치적, 문화적 냉전이라는 더 큰 맥락 속으로 회수되어 갔던 것이다. 한반도에 대한 미소의 분할점령 과정에서 콜레라는 그 국경의 경계를 더욱 단단한 것으로 만드는 효과를 발생시켰다.

1946년의 콜레라는 중국과 일본에서 먼저 발생한 것이지만, 해방 후 한반도로 귀환하는 사람들을 통해 조선에 콜레라가 전파되게 되었다. 일본에 콜레라가 전파되고 약 한 달 후, 부산항에도 콜레라가 유입되었다. 중국 광동에서 조선인 귀환자 3,100여 명을 태우고 5월 1일 부산으로 들어온 귀환선 내에 콜레라 환자가 발생한 것이다. 익일콜레라 환자는 선내에서 사망했고, 그 후로도 의심환자가 발생했다. 미군은 콜레라로 사망한 자의 시체만 가져갔을

12) 정병준, 「1945~48년 美・蘇의 38선 정책과 남북갈등의 기원」, 『중소연구』 27호,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04, 184쪽.
13) 박인순, 「美軍政期의 韓國保健醫療行政에 관한 硏究」, 『복지행정논총』, 한국복지행정학회, 1994.

뿐, 격리시설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환자를 선내에서 격리시키고 일반승객도 배 안에 머무를 것을 명령했다.[14]

1946년 8월, 국내 귀환을 목적으로 도문에 몰려든 한인피난민들 속에서 전염병 콜레라가 발생하였다. 도문시에서 발생한 콜레라는 며칠사이에 이곳에 임시거처를 마련하고 귀환을 기다리던 한인 3백여 명의 생명을 앗아갔다. 그리고 8월 말에 이르러 콜레라는 전 연변 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연길현 조양천 일대에서도 5명이 전염되어 사망하였고, 혼춘현에서도 4백여 명이 콜레라 · 천연두 등 급성전염병에 전염되어 그중 28명이 사망하였다. 이와 같이 광복 직후 국내귀환을 위하여 도문과 기타 두만강연안으로 몰려온 수많은 한인들은 불의에 닥쳐온 전염병으로 하여 그렇게도 그리던 조국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이국땅에 뼈를 묻어야만 했다.[15] 또한 귀국선을 타고 우여곡절 끝에 귀국선은 타고 조국의 항구에 도착한 귀환자들조차도 콜레라로 인한 하선금지령으로 귀국이 지연되는 사태는 빈번한 것이었다. 청도에서 미군이 제공한 LST편으로 인천을 향해 출항했던 경험을 증언하고 있는 이야기에 따르면, 당시 조선인 1000여 명을 태우고 청도를 떠나 인천항에 도착한 일행들이 "콜레라 전염병으로 하선(下船) 금지령이 내려 선내에서 6일간 갇혀 있다가 4월 21일에야 조국 땅을 밟았다."[16]는 기록도 있다.

미디어에 노출된 귀환자의 이미지는 대개 가난하고, 전염병을 옮기고, 식량이나 물건을 훔치고, 토굴 · 토막이나 방공호를 전전하며 도시에서 범죄를 일삼는 사회적 민폐집단이자 동시에 시급한 사회적 구호가 필요한 집단으로 고착화되었다. 이처럼 전재민 · 전재동포라는 용어는 해방으로 한껏 고양된 민족주의와 신국가건설이라는 발전적 전망이 지배하던 1945년 8~10월경에

14) 김정란, 「경계, 침입, 그리고 배제 : 1946년 콜레라 유행과 조선인 밀항자」, 『해항도시문화교섭학』, 2021.10, 15~16쪽.

15) 김춘선, 앞의 글, 9쪽.

16) 「[68년전 귀국선 일기] 배홍직 목사, 8 · 15 귀국비화 감동」, 『이코노미톡뉴스』, 2014.9.18. 해방된 조선의 권역으로 귀환하는 사람들에게 강제되었던 이 격리의 과정은 조선을 떠나 외국으로 향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작동하였다. 이태준은 그의 소련기행의 한 대목에서 "조선에 호역(虎疫)이 도는 관계로 조선서 오는 사람은 누구나 먼저 격리촌으로 가서 5, 6일 묵어보는 절차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태준, 『소련기행. 농토. 먼지』, 깊은 샘, 17~18쪽.

는 '포섭 · 포용 · 동정 · 구호'의 맥락에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1945년~1946년 동절기를 지나면서 이들로 인해 생활난이 심화되자 노골적인 '배제 · 경계 · 소외 · 방치'의 담론으로 변질되었다. 그 결과 이들은 기존 빈민계층과 함께 해방 후 한국사회에서 '이등국민'이라는 사회적 낙인 속에 살게 되었다.[17]

감염병이 불러온 공포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당대의 미디어였고, 문학은 이 공포가 불러온 시스템과 질서의 혼란을 조명한다. 일본에서 1945년 8월에서 1946년 12월 사이 귀환한 조선인의 숫자는 약 140만 명 정도라고 알려져 있다. 부산항을 통해 귀환한 조선인들의 대다수가 부산에 체류하거나 정착했기 때문에 해방 직후 부산의 인구는 단기간에 급증했고, 이로 인한 주택난, 실업난, 식량난 등 많은 사회문제를 겪게 되었다.[18] 재일조선인 작가 이은직의 장편소설 『탁류』는 부산의 귀환자 부락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면서, 귀환자들이 직면한 질병과 차별의 현실을 조명하고 있다.

염상섭은 만주에서 귀환하던 한인들의 모습을 담은 일련의 작품에서 콜레라라는 감염병을 직시하고 있다. 특히 그의 단편 「삼팔선」은 귀환의 과정에서 남과 북을 분할점령한 소련군과 미국군의 감시와 정치적 주권을 획득하지 못한 조선인의 초라함을 적시하고 있으며, 해방이 주권의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귀환자들의 이동을 효과적으로 막는 장치가 콜레라라는 감염병이었다는 것에 주목하는 것은 중요하다.

> "만주에서 무었을 했드냐는 부터 묻기 시작을하야 사상문제를 끄내가지고 문답이 한참 되다가 있다 다시 만나서 좀더 자세히 묻겠다하고 들어가 버린뒤에, 그 패의 짐조사가 시작되었다. … (중략) … 더구나 그편사람들의 호열자 예방주사 증명서를 걷우라하야 들고 들어갔으니, 있다고 래일이고 「다시 만나 묻고」나야 내줄 모양같다. 우리더러도 주사증명서를 걷우어 들이라고나 아니할까 겁이 난다."[19]

17) 이연식, 「해방 직후 남한 귀환자의 해외 재이주 현상에 관한 연구」, 『한일민족문제연구』, 2018.6, 96쪽.
18) 조은애, 『디아스포라의 위도』, 소명출판사, 2021, 204쪽.
19) 염상섭, 「三八線」, 『염상섭 전집 10』, 민음사, 1987, 84쪽.

만주에서부터 남하하여 신의주를 거쳐 삼팔선을 향하던 귀환자들에게 필요한 신분은 국적이 아니라 '호열자 예방주사'였다. 그것은 그들이 해방된 조국의 방역에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자신의 조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남쪽으로 내려가는 일본인이나, 해방기의 혼란을 틈타 비밀리에 외환거래를 하는 '잠상군'들과 그들은 구분되지 않는다. 이러한 관리의 주체가 북의 소련과 남의 미군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아무리 약소민족이기로 손바닥만한 제땅 속에서 왔다 갔다하는데 이렇듯 들볶이는 것을 생각하면 절통하다."(91면)는 탄식으로 표현된다.

4. 대구의 폭동과 제주의 항쟁, 주권의 재영토화

콜레라라는 감염병과 관련해서 기억해야할 장소는 접경지만이 아니다. 해방 후 대구와 제주에서 일어난 정치적 격랑은 콜레라와 직접적인 관련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하다. 1946년 12월까지 콜레라 피해가 가장 심했던 대구는 2,578명 발병에 1,718명의 사망자를 냈다. 굶주림에 이어 병마로 다시 쓰러져야 했던 사람들-그들의 원과 한의 입김이 모여 시월의 폭풍을 불러왔다. 그런 점에서 1946년 여름의 콜레라는 세상이 병들었음을 알려준 또 하나의 시약(試藥)이었다.[20] '한국분단사 연구'에 따르면 당시 1만여 명의 사람들이 콜레라에 감염됐으며, 이 중 1천2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복룡은 '한국분단사 연구'에서 "당시 대구 인구는 10만 명 정도였으니, 콜레라 환자가 1만 명이나 되고 사망자가 1천200여 명에 이른 것은 정말 온 도시가 그 병에 짓눌린 형국이었다"[21]고 썼다.

콜레라가 만연하면서, 대구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로 고통스러운 점이 많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거의 100퍼센트 사망하는 콜레라

20) 정영진, 『폭풍의 10월』, 한길사, 1990, 279쪽.
21) 신복룡, 『한국분단사연구 : 1943-1953』, 한울 아카데미, 2001, 522쪽.

환자가 천 명 이상 대구 시내에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방역 당국에서 콜레라의 만연을 막기 위해 대구와 외부와의 왕래를 차단시킨 것입니다.[22]

그런데 대구가 식량 상황이 더욱 심각했던 이유는 '콜레라'가 발생했던 겁니다. 남쪽 동남아시아 등지에 나갔던 한국인들이 귀환하면서 전염된 거예요. 부산항에서 미군들이 ddT니 무슨 예방주사니 하며 방역을 했지만 전부 형식적인 겁니다. 아무튼 대구시 전체가 격리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23]

결국 콜레라 창궐과 그에 따른 도시 봉쇄에 대한 불만을 기화로 폭발했던 것이 1946년 대구 경북에서 일어난 10.1 봉기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이병주는 그의 대표작인 『관부연락선』에서 대구에서 발생한 콜레라가 사람들의 마음에 일으킨 영향을 무심한 듯 스케치하기를 잊지 않는다. "이해의 여름엔 콜레라가 만연해서 민심의 분열을 미분하고 혼란을 적분하는 데 부채질을 했다."[24]는 언급이 그것이다. 그는 해방기의 혼란스런 정국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도 민중의 삶을 가장 어렵게 만든 것이 콜레라 감염병이었다는 논평을 던지고 있다. "게다가 부산에서 발생한 콜레라가 전국에 만연해서 물질적 생활의 피폐도 극도에 이르렀다. 마크 게인이 그의 『일본일기(日本日記)』에서 한국을 언급,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나라라고 말했는데 그 평을 과장 표현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25] 대구에서 일어난 10월 봉기가 미군정에 항의하는 민중운동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고 이것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나가서 제주에서의 4.3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이러한 미군정에 대한 항의와 이에 대한 이념적 탄압이 콜레라와 연동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남한에서 주민의 수와 대비해서 가장 심각한 발병률과 사망률을 보여준 지역은 제주도였다. 미군정의 보고서는 이러한 제주의 콜레라 발병세에 대해

22) 박희명, 앞의 글, 160~161쪽.
23) 이일재, 「대구항쟁? 먹을 것이 없어 싸운 거죠」, 문제안 외, 『8-15의 기억』, 한길사, 2005, 171쪽.
24) 이병주, 『관부연락선』 1, 한길사, 2006, 35쪽.
25) 이병주, 『관부연락선』 2, 한길사, 2006, 59~60쪽.

서 방역 격리 조치가 이완된 것과 감염된 피난민이 제멋대로 밀수, 밀항하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판정하였다. 이는 제주 지역 콜레라 전염과 발병이 해방직후 제주도의 경제, 사회적 상황과 연관된 것이었음을 시사한다.[26]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 상황과 콜레라 사태는 이후로 이어진 제주 4.3 사건과 밀접히 연동되는 것이다.

해방 후 일본으로부터 돌아온 도민으로 인해 제주의 인구는 급증하였고, 전국적인 대흉년과 제조업체의 가동 중단, 높은 실업률, 미곡 정책의 실패 등으로 제주 경제는 빈사 상태에 빠졌다. 이런 상황에서 1946년 6월부터 제주를 휩쓴 콜레라는 2개월여 동안 최소 369명의 사망자를 냈다. 미군정은 제주도민들을 압박하고 수탈하는 데 앞장섰던 일제의 경찰과 관리들을 해방 후에도 기용했고 이는 미군정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낳았다.

현기영의 소설들은 제주의 4.3 사건을 조명하면서, 1946년 제주를 휩쓴 콜레라에 대한 기억을 구체적으로 상기하고 있다.

> 그렇게 외갓집을 오고 가며 한 반년쯤 별 탈 없이 지내고 있었는데, 내가 만 다섯 살 되던 여름에 돌연 그 길이 차단되어버렸다. 흉년에 역병이라더니 온 섬에 호열자(콜레라)가 창궐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전염이 빠르고 치사율이 높은 병이었다. 마을과 마을을 잇는 길들이 차단되고, 환자가 발생하면 그 집 대문에 금줄을 쳐서 사람 출입을 막았다.[27]

콜레라는 마을과 마을의 이동을 차단하고, 일본이나 외지에 나갔다가 섬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마을 출입을 막았다. 마을의 민심이 흉흉해져 갔으며, 그해의 농사가 흉작이 되어서, 해방을 맞은 사람들은 역병과 흉년으로 혹독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러므로 섬사람들에게 해방은 진정한 의미의 해방이 아니었다.”는 화자의 서술과, “그러므로 그 이듬해인 1947년 3월 1일, 읍내에 2만 군중이 모여든 대시위는 이렇게 극한 상황에 몰린 민생의 피

26) 임종명, 앞의 글, 163~4쪽.
27) 현기영, 『지상에 숟가락 하나』, 실천문학사, 1999, 28쪽.

맺힌 절규였다."(34면)라는 주장은 흉년과 함께 콜레라가 4.3 발발의 주요한 동기가 되었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콜레라에 대한 기억은 어린 화자의 기억 속에서 변주된다.

> 이러한 물정을 알 리 없는 어린 나로서는 그것을 호열자 내습 비슷한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 보리 추수 무렵이었으리라. 마을 청년들은 저번 호열자 때처럼 동구 앞 한 길을 돌담 쌓아 차단해 놓았다. 물론 경찰차의 집입을 방해하기 위한 것인데, 일반인의 출입은 자유로웠다. 청년들은 멀리서 망보다가 경찰차가 나타나면 "호열자다 호열자!"하고 소리쳐 서로에게 알리면서 마을 위 들판으로 피신하곤 했다.(36면)

현기영의 『지상의 숟가락 하나』의 어린 화자의 눈을 통해 본 콜레라의 습격은 동네 사람들이 관에 항거하기 위해 든 횃불과 비슷한 것으로 이해되며, 특히나 콜레라를 차단하기 위해 마을 경계에 설치한 돌담은 민간인을 위협하는 주권권력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제주에서의 전염병 방역은 내륙에서와는 다른 독특한 위상을 지니게 된다. 주권의 감시의 시선이 콜레라의 이동과 귀환자, 시위자를 동일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면, 이에 항거하는 제주의 시민들은 경찰권력의 출현을 '호열자'라는 은어로 표현했던 것이다. 이는 격리와 차단의 근거가 되는 감염병을 자신의 맥락 속으로 재영토화시켜 주권권력에 대한 대응을 강구하는 시도라고 할 것이다.

> 그런데 이 한길이 도령마루에서 차단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냐? 이 년 전 해방 이듬해 호열자가 번성했을 때부터다. 노형에 생긴 호열자가 다른 지방으로 전염될까 봐 이 고개에다 돌을 쌓고 가시나무를 베어다 길을 차단하고 사람 왕래를 막았다. 호열자는 순구 또래의 어린것들을 무더기로 죽이고 물러갔다. 좌익사상인가 뭔가 하는 것도 딱 호열자병을 닮았다. 그건 호열자처럼 무섭게 번지고 일단 거기에 걸리면 꼭 죽게 마련인 무서운 전염병이다. 호열자 때문에 돌을 쌓아 두 달 동안이나 길을 차단하던 이 도령마루에 한동안 좌익 사람들이 읍내 토벌군 차가

> 못 오게 여러 차례 돌을 쌓더니, 이제는 토벌군 쪽에서 계엄령까지 내리고 성을 쌓아 놓았구나. 이제 읍내와 연결되는 성을 쌓아 놓았으니, 곧 서호와 읍내가 서로 왕래가 되리라 한다. 순원아, 그때까지 조금만 참아라.[28]

현기영의 단편 「도령마루의 까마귀」에서는 제주에 발생한 콜레라를 좌익사상에 비유하여 표현한다. "섬바닥이 온통 호열자병으로 들끓던 여름이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곧 난리 일어날 징조라고 무척 두려워하고 있을 때였다. 아닌게아니라 호열자 번지듯 때맞춰 좌익사상이란 것이 무섭게 번지고 있었다."[29]는 「길」의 표현 또한 그러하다. 콜레라(호열자)는 좌익사상이라는 이념에 비유되고 있고, 사람들의 이동을 차단하는 장애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제주에서 발생한 콜레라는 해방기 귀환 서사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

> 삼팔선이 막혀 비료도 안 들어오는 판에 무슨 농사가 되겠는가. 보리는 흉작인데 섬 인구는 엄청 불어나 모두들 먹자고 아우성인데 보리 공출이라니, 해방된 나라에 공출이 웬말이냐고 사람마다 원성이 자자했다. '8 · 15는 진정한 해방이 아니다' '완전독립'이란 말이 유행처럼 번졌다.
>
> 마을마다 '보리 공출 절대 반대'라고 쓰인 삐라가 사방에 나붙고, 공출 독촉하러 나온 면서기들이 얻어맞는 사태가 잇따라 발생했다. 우묵개에서도 면서기 구타사건이 발생하여 청년 두 명이 경찰에 끌려가 모진 매를 맞고 구류를 살았다. 흉년에 역병이라더니, 그 무렵 호열자가 크게 창궐하여 삼백여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사람들마다 세상을 저주하고 신경이 날카로울 대로 날카로워졌다.[30]

「거룩한 생애」에서 보리 공출 사태와 이에 대한 주권의 처벌, 그리고 콜레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을 묘사하는 장면은 제주에서의 콜레라 사태가 해방기 한반도에서 일어난 혼란과 다르지 않는 모습임을 증명한다. 단편 「마지막

28) 현기영, 「도령마루의 까마귀」, 『순이삼촌 외』, 동아출판사, 1995, 167~168쪽.
29) 현기영, 「길」, 위의 책, 212쪽.
30) 현기영, 「거룩한 생애」, 위의 책, 429~430쪽.

테우리」에서 일제의 조합서기들과 맞서 싸우다가 구류를 살았던 주인공인 해녀 간난이가 해방 후 제주에서 불온분자로 낙인찍히는 과정은 제국 일본에서 미군정청으로 전환되는 국제정치의 변화가 식민지의 인민에게는 동일한 억압의 다른 이름일 뿐이었음을 증언하고 있다. "일제에 의해 불온분자라고 낙인찍힌 자는 해방된 땅에서도 여전히 불온분자"(434면)라는 인식은 특히 4.3이라는 사건이 이러한 탈식민의 과제와 연동되는 것만이 아니라, 감염병의 생명정치와도 관련 깊은 것임을 보여주는 텍스트로 현기영의 작품을 다시 읽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5. 감염병과 생명정치

1946년에 한반도 전역에 발발한 콜레라 사태는 해방이라는 사건이 국민국가의 영토를 구획하고 주체를 재생산하는 주권권력의 문제만이 아니라, 영토와 인구관리, 주체의 재생산, 건강과 질병 등 생명 영역 전반에 관한 생명정치의 문제임을 일깨워주었다. 콜레라의 방역과정에서 발생한 이동의 차단과 격리는 생명정치의 규율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식민지로부터 벗어나 국민국가적 영토를 재편하던 한반도의 재영토화는 심각한 굴절의 양상을 드러내게 되었다. 이 글은 1946년 발생한 콜레라라는 감염병 사태와 관련하여 이를 통제하고 관리하려는 생명권력이 변화하고 이동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 살펴본 미군정청이라는 전후의 통치체계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통치 이후의 일상을 관리하는 과정은 결국 해방 후 한반도의 주권이 재영토화되는 맥락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후식민지적 주체형성의 과정과 연동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삶과 행위와 지식을 특정하게 조직 · 배치함으로써 주체성을 구성하는 복합적인 구조가 식민지/제국의 체제라면, 그 체제의 붕괴 이후 개인과 체제 사이에 발생한 투쟁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생체권력과 결합한 정치체였으며, 이는 질병을 관리하는 모습에서 다양한 양상을

드러냈다.

본 논문에서는 총독부의 식민통치술이 미군정의 관리술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콜레라 사태에서 아직 국민국가를 형성하지 못한 한국인들의 삶과 죽음을 관리한 생명정치의 양상이 귀환과 월경, 대구폭동과 43항쟁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콜레라의 발생이라는 사태와 연관지어 파악하고자 하였다. 감염병이란 단순히 생물학적인 존재의 작동에 의한 병리적인 것이 아니라, 해방과 귀환, 주권권력의 변화와 사회적 분화와 같은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구성되는 것이며, 1946년의 콜레라 사태는 그러한 사회적 구성관계를 보다 잘 이해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문화적 산물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생명권력에 의해 관리되는 주체들이 콜레라와 대면하며 자신들의 육체를 인식해가는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탐구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정란, 「경계, 침입, 그리고 배제 : 1946년 콜레라 유행과 조선인 밀항자」, 『해항도시문화교섭학』, 2021.10.
김춘선, 「중국 연변지역 전염병 확산과 한인의 미귀환」, 『한국근현대사연구』 43, 2007.
문제안 외, 『8-15의 기억』, 한길사, 2005,
박인순, 「美軍政期의 韓國保健醫療行政에 관한 硏究」, 『복지행정논총』, 한국복지행정학회, 1994.
신복룡, 『한국분단사연구: 1943-1953』, 한울 아카데미, 2001.
이병주, 『관부연락선』 1,2, 한길사, 2006.
이연식, 「해방 직후 남한 귀환자의 해외 재이주 현상에 관한 연구」, 『한일민족문제연구』, 2018.6.
임종명, 「1946년 전남 · 제주 지역의 콜레라 발병세와 지역적 질병 문화권」, 『역사학연구』 81집, 2021.2.
정병준, 「1945~48년 美 · 蘇의 38선 정책과 남북갈등의 기원」, 『중소연구』 27호,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04.
정영진, 『폭풍의 10월』, 한길사, 1990.
조은애, 『디아스포라의 위도』, 소명출판사, 2021.
최영호, 「해방직후 부산경남지역의 귀환자 원호체계와 원호활동」, 『근한국민족운동사연구차36』,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3.
프랭크 M. 스노든, 『감염병과 사회 페스트에서 코로나19까지』, 이미경 · 홍수연 역, 문학사상, 2021.
현기영, 『순이삼촌 외』, 동아출판사, 1995.
_____, 『지상에 숟가락 하나』, 실천문학사, 1999.
황상익 · 김수연, 「해방 전후부터 정부 수립까지(1945년-1948년)의 북한 보건의료」, 『醫史學』 제16권 제1호 (통권 제30호), 大韓醫史學會, 2007년 6월.

Infectious diseases and reterritorialization of sovereignty

– Scenes brought about by the outbreak of cholera in 1946 –

Huh Byungshik*

During the Japanese imperialism period, Koreans living in the sphere of the former Japanese Empire outside the Korean Peninsula returned to Korea after liberation. I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in which sovereign power was reorganized from the imperial-colonial order to the Cold War-nation-state order, the harms of colonial rule and the interests of the great power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after the war intersected, the aspect surrounding the return was facing a complex phase. Crossing the borderline that crossed the Cold War between the Korean Peninsula and Japan and between the Korean Peninsula and Manchuria was also a task of committing oneself to the territory, country, and identity to which one belonged.

The cholera outbreak that broke out across the Korean Peninsula in 1946 acted as a decisive obstacle to the movement of returning and bordering peoples. The return of Koreans who were working in Japan was hindered by cholera. Also, one of the important reasons why Koreans in northeast China chose to settle there rather than return home was the cholera epidemic that swept the entire Yanbian region around Tumun. In the process, the return of Koreans, who were not even given full nationality, was swept away by the international reality and the harsh post-war East Asian order.

* Dongguk University Narrative Culture Research Institute

It was the media of the time that reacted most sensitively to the fear brought about by the infectious disease, and literature sheds light on the chaos of the system and order brought about by this fear. In a series of works depicting Koreans returning from Manchuria, Yeom Sang-seop faces an infectious disease called cholera. What is required of Koreans returning from Manchuria is to verify their ideas and whether they have been vaccinated against cholera. Quarantine is working on both sides of ideology and infectious disease.

The border isn't the only place to remember when it comes to infectious disease cholera.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the political upheaval in Daegu and Jeju after liberation was directly related to cholera. The people who had to fall again due to illness following hunger - their won and the breath of Han gathered to bring about the storm of October. In South Korea, the region that showed the most severe morbidity and mortality compared to the number of residents was Jeju Island. The report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determined that the cholera outbreak in Jeju was caused by the relaxation of quarantine measures and the smuggling and smuggling of infected refugees at will. Great Famine and Jeju's economy fell into a state of death due to manufacturing shutdowns, high unemployment, and failure of rice policies. And this economic situation and the cholera crisis are closely linked to the Jeju 4.3 incident that followed. In the landscape of Jeju after liberation, which Hyun Ki-young illuminates in his works, there is always a picture of a village that has been horrified by cholera. This study illuminates a series of events that provoked agitation in the borderlands of the liberation period, Daegu, and Jeju in the contemporary political and social context, and analyzed the discourses of literature and media staring at them.

Key words : Infectious disease, cholera, return, biopolitics, border area

논문투고일 : 2022년 7월 24일 ‖ 심사완료일 : 2022년 11월 13일 ‖ 게재확정일 : 2022년 11월 23일